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 학습자의 오류 표현에 대해서

On the Fault of Expression of Japanese, Korean Learning

日本人の韓国語学習者の誤謬表現について

Hyunkuk PARK

朴 炫 国

개 요

한국사람이나 일본사람은 서로 상대방 말을 배우기 쉽다고 한다. 이것은 일부 주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두 언어가 알타이어족으로서 공통 조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말이나 일본말은 언어 유형상 교착어로서 기본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어미나 조사가 붙어서 변화한다. 또한 중국의 영향으로 비슷 한자말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말로 글을 지을 때 자주 혼동하는 문법이나 표현에 대해서 언급해 보았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이고 올바른 한국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다. 특히 류코쿠대학 국제학부 2학년 작문 수업을 중심으로 얻은 자료를 활용했다. 작문의 길이나 오류표현은 학생들의 학습시간, 유학 경험 여부나 기간, 그리고 가정 학습 환경 따위에 따라서 바뀐다. 이 글에서는 학습자 개인 사정은 무시하고, 학생들이 제출한 작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제어 : 한국말, 일본말, 쓰기 표현, 작문, 문장

Abstract

It is said that Korean people and Japanese people have a relatively easy time when they learn each other's languages. Some argue that this sentiment is only shared by a small number of people, however, because both languages are Altaic languages, the statement can be valid. As categorically agglutinative languages, word transformation is possible in Korean and Japanese by putting the basic form in the center and adding endings or postposition particles. Additionally, both languages share similar words with Chinese roots due to Chinese influences. This report describes grammar and expressions that Japanese learners of Korean often confuse when writing an essay. The content is not absolute but necessary for efficient and correct usage of Korean. The report contains data collected from essays written by second year students studying International Culture Studies at Ryukoku University. The lengths and errors of the essays may vary due to the students' study methods, family background, and whether or not they studied abroad. This report

ignores personal matters of the students and considers only the content of the essays that the students submitted.

Keywords : Korean, Japanese, expression, writing, sentence

概 要

韓国人や日本人は相手の言語が比較的学びやすいと言われています。それは一部の主張だと言う人もいますが、互いの言語を学びやすいと感じる理由は、二つの言語がアルタイ語族として共通の祖語を有することにあります。韓国語と日本語は言語の類型上、膠着語として基本形を中心に、さまざまな語尾や助詞がついて変化が可能になります。また中国の影響で似たような漢字語を共有してます。この文では、日本人の韓国語学習者が作文を行う際によく混同する文法や表現について述べさせていただきます。これは絶対的ではありませんが、効率的で正しい韓国語使用のために必要だと考えられる内容です。この文はこれまで龍谷大学国際文化学部2年生の作文授業を中心に得た資料を活用しました。作文の長さや文中の誤りなどは生徒の学習時間、留学経験の有無また留学期間、そして家庭環境などによって変わります。本稿では、学習者の個人事情は無視して、学生たちが提出した作文の内容を中心に考察しました。

キーワード：韓国語、日本語、表現、作文、文章

머리말

한국 (韓國) 사람이나 일본 (日本) 사람은 비교적 (比較的) 상대 (相對) 언어 (言語) 가 배우기 쉽다고 합니다. 일부 주장 (主張) 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두 언어가 알타이 어족 (語族) 으로서 공통 (共通) 조어 (祖語) 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韓國語) 와 일본어 (日本語) 는 언어 (言語) 유형상 (類型上) 같은 교착어 (膠着語) 로서 기본형 (基本形) 을 중심 (中心) 으로 여러 가지 어미 (語尾) 나 조사 (助詞) 가 붙어서 변화 (變化) 가 가능 (可能) 합니다. 또한 중국 (中國) 의 영향 (影響) 으로 비슷한 한자말을 공유 (共有)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일본인 (日本人) 한국어 (韓國語) 학습자 (學習者) 가 작문 (作文) 을 할 때 자주 혼동 (混同) 하는 문법 (文法) 이나 표현 (表現) 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 (絶對的) 인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 (效率的) 이고, 바른 한국어 (韓國語) 사용 (使用) 을 위해서 필요 (必要) 하다고 여겨지는 내용 (內容) 들입니다.

이 글은 그동안 류코쿠대학 (龍谷大學) 국제학부 (國際學部) 2학년 작문 (作文) 수업 (授業) 을 중심 (中心) 으로 얻은 자료 (資料) 를 활용 (活用) 했습니다. 국제학부에서는 1학년 때 한국어 (韓國語) 를 선택 (選擇)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韓國語) 를 선택하는 학생 (學生) 은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0명에서 35명 정도 (程度) 입니다. 이 학생 (學生) 들의 한국어 (韓國語) 수업 (授業) 은 한 주 (週) 에 세 시간 (한 시간 : 90분) 씩 이루어집니다. 이 가운데 2학년년부터 배우는 작문 (作文) 을 선택하는 학생은 반 정도입니다. 작문 (作文) 의 길이나 오류 (誤謬) 따위는 학생의 학습시간 (學習時間), 유학정도 (留學程度), 가정환경 (家政環境) 따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습자 개인 (個人) 사정 (事情) 은 무시 (無視) 하고, 학생들이 제출 (提出) 한 작문 (作文) 내용 (內容) 을 중심 (中心) 으로 고찰했습니다.

1. 한국어 (韓國語) 관형사 (冠形詞) 와 일본어 (日本語) 연체형 (連体形)

한국어 (韓國語) 학교문법 (學校文法) 은 명사 (名詞), 대명사 (代名詞), 수사 (數詞), 동사 (動詞), 형용사 (形容詞), 관형사 (冠形詞), 부사 (副詞), 감탄사 (感歎詞), 조사 (助詞) 따위 품사 (品詞) 가 있습니다.¹⁾ 이 가운데 관형사 (冠形詞) 는 일본 (日本) 에서 사용 (使用)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본어 (日本語) 문법 (文法) 에서는 형용동사 (形容動詞) 가 있지만 한국어 (韓國語) 에는 없습니다. 일본어 (日本語) 에서 관형사 (冠形詞) 와 비슷하게 연체형 (連体形)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언 (体言, 명사, 대명사) 과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일본어 (日本語) 에서 말하는 연체형 (連体形) 은 명사 (名詞) 앞에 형용사 (形容詞) 원형 (原形) 이 그대로 와서 명사 (名詞) 를 수식 (修飾) 합니다. 한국어 (韓國語) 관형사 (冠形詞) 와 조금 다릅니다. 한국어 (韓國語) 관형사 (冠形詞) 가 명사 (名詞) 를 수식 (修飾) 한다는 점에서 연체형 (連体形) 과 같지만 형태 (形態) 가 다릅니다. 한국어 (韓國語) 관형사 (冠形詞) 는 일본어 (日本語) 처럼 원형 (原形) 이 쓰이지 않고, 관형사형 (冠形詞形) 어미 (語尾) 를 붙여서 사용 (使用) 합니다. 이처럼 원형이 그대로 쓰이는 일본어 사용자에게 한국어의 어미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관형사형에 시제 (時制) 를 나타내는 경우 어미가 다시 바뀌기도 합니다.²⁾ 그리고 일본어에서 연체형으로 쓰이는 원형 (原型) 은 주로 한국말 형용사에 해당합니다. 그 사용 예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말 관형어 표현		일본말 연체형 표현	
〈원형 (原形)〉	〈사용 (使用) 예 (例)〉	〈기본형 (基本形)〉	〈사용 (使用) 예 (例)〉
①맛있다	맛있는 밥	おいしい	おいしいごはん
②멋지다	멋진 사람	すばらしい	すばらしい人
③아름답다	아름다운 사람	美しい	美しい女
④하얗다	하얀 구름	白い	白い雲
⑤화려하다	화려한 사람	はばばらしい	はばばらしい人
⑥훌륭하다	훌륭한 사람	すばらしい	すばらしい人
⑦먹다	먹은 사람	食べる	食べる人

2. 한국어 (韓國語) 타동사 (他動詞) 와 일본어 (日本語) 자동사 (自動詞)

한국어 (韓國語) 나 일본어 (日本語) 에서 조사 (助詞) 가 사용 (使用) 됩니다. 조사 (助詞) 가운데 주격 (主格) 조사 (助詞) 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목적격 (目的格) 조사 (助詞) 〈을／를〉은 일본어 (日本語) 와 한국어 (韓國語) 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어 (韓國語) 에서 타동사 (他動詞) 로 사용되어 목적격 (目的格) 조사 (助詞) 를 필요 (必要) 로 하지만 일본어 (日本語) 에서는 자동사 (自動詞) 로 쓰이기 때문에 목적격 (目的格) 조사 (助詞) 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소개 (紹介) 하면 〈타다〉와 〈만나다〉가 아닌가 합니다. 동사 (動詞) 의 자동사 (自動詞), 타동사 (他動詞) 쓰임은 절대적 (絶對的) 이지 않습니다. 일상 회화에서 목적격 조사를 생략하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동사 (動詞) 가 자동사 (自動詞) 와 타동사 (他動詞) 둘 다 쓰이는 경우도 있고, 동사 표현 자체가 자동사형으로 바뀌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한국말에서는 타동사 (他動詞) 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일본말에서는 자동사 (自動詞) 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 타동사

일본어 자동사

①꽃을 좋아하다 (花を好む)

花が好き。

꽃이 좋다

②부친을 닮다

親(おや)に似(に)る

③비를 싫어하다.

雨がきらい

비가 싫다

④차를 타다

車に乗る。

⑤친구를 만나다.

友達にあう。

⑥한국말을 잘 한다.

韓国語がじょうず。

3. 한국어 (韓国語) 〈- 되다〉와 일본어의 〈- になる〉

〈- 되다〉동사(動詞)의 경우 〈- 이/가 되다〉입니다. 일본어(日本語)에서는 〈- になる〉를 씁니다. 한국말에서 〈- 되다〉앞에 주격조사(主格助詞) 〈- 이/가〉가 쓰이지만 주어(主語)라고 말하지 않고 보어(補語)입니다. 앞에 나온 주어(主語)를 보충(補充) 설명(説明)하는 말입니다.

한국어 표현

일본어 표현

①그는 커서 대장장이가 되었다.

彼は成長して鍛冶屋になった。

②그는 커서 사냥꾼이 되었다.

彼は成長して狩人になった。

③물이 얼음이 되었다.

水が氷になる。

④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었습니다.

幼虫から蝶になりました。

4. 한국어 (韓国語) 〈- 아니다〉와 일본어 (日本語) 의 〈- ではない〉

한국어(韓国語) 〈- 아니다〉형용사(形容詞)의 경우 〈- 이/가 아니다〉입니다. 일본어(日本語)에서는 〈- ではない〉를 씁니다. 한국말에서 〈- 아니다〉앞에 주격조사(主格助詞) 〈이/가〉가 쓰이지만 주어(主語)가 아니고 보어(補語)입니다. 앞에 나온 주어(主語)를 부정(否定)하는 말입니다.

한국어 표현

일본어 표현

①그는 선생이 아니다.

彼は先生ではない。

②나는 운전수가 아니다

私は、運転手ではない

③여기는 공원이 아니다.

ここは、公園ではない。

④이것은 사과가 아니다.

これはリンゴではない。

5. 능동(能動)과 수동(受動)

문장(文章) 표현(表現)에서 일본말은 수동(受動) 표현(表現)이 많이 쓰입니다. 말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국말 표현(表現)은 능동(能動) 표현(表現)이 많고, 자주 쓰입니다. 의미(意味)를 전달(傳達)하는데 문제(問題)는 없습니다. 다만 어감(語感)이 일본어(日本語)를 직역(直譯)하면 한국말 표현에서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한국말 표현〉

〈일본말 표현〉

〈직역〉

①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お医者さんに声を聞きました。

의사 선생님께서 말을 들었습니다

니 다.

- | | | |
|--------------------|-------------------|--------------------|
| ②점장이 작업 시간을 늘려주었다. | 店長に作業時間を増やしてもらった。 | 점장에게 작업시간을 늘려 받았다. |
| ③점장이 주의를 주었다 | 店長に注意をきかれた。 | 점장에게 주의를 들었다. |

6. 한국어 (韓国語) 의 사동 (使動) 표현 (表現) 과 일본어의 능동 (能動) 표현 (表現)

한국말 표현 (表現) 에서 사동 (使動) 표현 (表現) 은 시키다 (-させる) 가 자주 쓰입니다. 일본말에 서는 사동 (使動) 표현 (表現) 을 꺼리고 능동 (能動) 표현 (表現) 을 사용 (使用) 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문장 (文章) 의 주어 (主語) 가 자기 (自己)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어떤 동작 (動作) 이나 행동 (行動) 을 하게 하는 방법 (方法) 입니다. 사동사 (使動詞) 에 의한 방법 (方法) 과 주동사 (主動詞) 에 어미 (語尾) <- 게> 를 붙이고 보조 (補助) 동사 (動詞) <하다> 를 쓰는 방법 (方法) 이 있습니다. 대개 대응 (對應) 하는 주동문 (主動文) 이 존재 (存在) 하며, 주동문의 주어 (主語) 는 주격 (主格) 조사 (助詞) 대신 '-에게', '-한테'가 붙어 새로운 문장 (文章) 성분 (成分) 이 됩니다.

사동 표현

- ①아이들의 염원을 실현 시킨 시설이다.
- ②수업을 끝냈다. (나다의 사동형 네다)
- ③새에게 모이를 먹였다.
- ④개에게 과일을 먹게 하다.

능동 표현

- 아이들의 염원을 실현하는 시설이다.
- 수업이 끝났다.
- 새가 모이를 먹었다.
- 개가 과일을 먹었다.

7. 한국어 (韓国語) <많다> 와 일본어 (日本語) <多い>

한국어 (韓国語) 에서 부사 (副詞) 로 쓰이는 말은 명사 (名詞) 가 아니고 동사 (動詞) 나 형용사 (形容詞) 앞에서 동사 (動詞) 나 형용사 (形容詞) 를 수식 (修飾) 합니다. 일본어 (日本語) 에서 <多い> 는 형용사 (形容詞) 로서 사용 (使用) 되며 형태 (形態) 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말에서 <많이> 는 부사 (副詞) 로 쓰입니다. 그리고 명사 (名詞) 앞에서 명사 (名詞) 를 수식 (修飾) 할 때는 관형사형 (冠形詞形) 으로 바뀌어 <많은> 이 쓰입니다. 그리고 서술형 (敘述形) 으로 쓰일 때는 <많다> 가 됩니다.

(1) 부사 (副詞)

- | | |
|-----------------|--------------------------------|
| ①여행도 많이 하고 싶어요. | * 많이 여행도 하고 싶어요. ³⁾ |
| ②이야기를 많이 하었어요. | * 많이 이야기 (말) 하었어요. |

(2) 서술형 (敘述形)

- | | |
|-------------------|-----------------|
| ①네 작문에는 잘못이 꽤 많다. | 君の作文には誤りがかなり多い。 |
| ②아이에게 병이 많다. | 子供に病氣多い。 |

(3) 관형사형 (冠形詞形)

- | | |
|---------------|-------------|
| ①아이에게 많은 병이다. | 子供に多い病氣。 |
| ②주문이 많은 요리집 | 注文の多い料理店 |
| ③칼슘이 많은 우유 | カルシウムの多いミルク |

8. 한국어 (韓國語) 와 일본어 (日本語) 의 서술 (敍述) 표현 (表現)

명사 (名詞) 의 서술형 (敍述形) 표현 (表現) 이 일본어 (日本語) 와 한국어 (韓國語) 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어 (日本語) 표현 (表現) 대로 직역 (直譯) 하면 한국어 (韓國語) 표현 (表現) 에서 어색 (語塞) 한 (ぎこちない)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어 표현

- ① 감기에 걸리다
- ② 겔레 (옷을) 를 빨다.
- ③ 검은 색으로 물들이다.
- ④ 계획을 세웠다.
- ⑤ 공부를 열심히 했다.
- ⑥ 그 영화를 보고 슬퍼서 울었습니다.
- ⑦ 늦잠을 잤다.
- ⑧ 밥을 짓다
- ⑨ 보고서를 썼다.
- ⑩ 시험을 치르다 / 보다.
- ⑪ 유학을 가다
- ⑫ 하루 종일 잤다.

일본어 표현

- 風邪を引く。(風邪にかかる。) * 감기를 당기다
 雑巾(服を)を濯う。* 겔레 (옷을) 씻다
 黒色にしました。* 검은색으로 했다.
 計画をしました。* 계획을 했다.
 勉強をがんばりました。*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その映画を見て悲しくて泣いていました。
 あさねほしました。* 늦잠을 했다.
 こはんをつくる。* 밥을 만들다.
 レポトをしました。* 보고서를 했다.
 試験を受ける * 시험을 받다
 留学する。* 유학을 하다
 一日寝ていました。* 하루 종일 자고 있었다.

9. 한국말에서 <-고> 와 <-서> 의 쓰임

한국말에서 <-고> 는 시간 (時間) 의 경과 (經過) 나 연속 (連續) 을 말하는데 주로 사용 (使用) 합니다. 그리고 <-서> 는 앞 말과 뒷말의 관계 (關係) 가 원인 (原因) 과 결과 (結果) 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간 (時間) 이나 원인 (原因) 과 관계 (關係) 없이 관용적 (慣用的) 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앞에 일어난 일을 전제 조건으로 다음 말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앞에 오는 말을 전제 (前提) 동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사건이나 행동이 동시에 이어나는 경우는 <-고> 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병렬 (並列) 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국어 표현

(1) 경과 (經過), 연속 (連續)

- ① 밥을 먹고 떡도 먹었다.
- ② 수업을 듣고 시장에 갔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사용하는 어색한 표현

수업을 들어서 시장에 갔습니다.

(2) 원인 (原因) 과 결과 (結果)

- ① 날고기를 먹어서 배가 아팠다.
- ② 대학에 도착해서 친구를 만났어요.
- ③ 여름처럼 더워서 싫습니다.
- ④ 오랜만에 놀아서 재미있었다.
- ⑤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웃었어요.

날고기를 먹고 배가 아팠다.
 대학에 도착하고 친구를 만났어요.
 여름처럼 덥고 싫습니다.
 오랜만에 놀고 재미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많이 웃었어요.

- ⑥ 좋아하는 고기를 많이 먹어서 행복했다.
- ⑦ 집에 와서 내 방에서 잤습니다.
- ⑧ 친구를 만나서 놀았습니다.
- ⑨ 카페에 가서 쉬었어요.
- ⑩ 프로그램을 보면서 듣기 연습을 한다.

- 좋아하는 고기를 많이 먹고 행복했다.
집에 왔고 내 방에서 잤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놀았습니다.
카페에 가고 휴식했어요.
프로그램을 보고 듣기 연습을 한다.

(3) 관용 (慣用) 표현 (表現)

- ①시장에 가서 장을 보았습니다.
- ②일어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 ③책을 빌려서 공부했다.

(4) 병렬 (竝列)

- ①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아들은 떡을 먹었습니다.
- ②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아이들은 방에서 장난을 쳤습니다.
- ③ 어머니는 시장에 가고, 저는 놀이터로 갔습니다.

10. 한국말에서 <-면> 과 <-자> 의 차이 (差異)

한국말에서 <면>은 조건(條件)인 경우에 주로 사용(使用)합니다. 현실적(現實的)으로 이뤄질 가능성(可能性)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면>은 조건(條件)이외(以外)의 경우에는 사용(使用)을 제한(制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말의 경우 <一ならば>는 조건(條件)보다는 동시다발(同時多發)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말 표현(表現) <자>가 옳습니다.

(1) 조건 (條件)

- ①내가 새라면 날 수 있을 텐데. 私が鳥ならば、飛べるはずだが。
- ②지금 비행기 표가 있다면 당장 갈 수 있습니다. 今飛行機の切符があれば今すぐ行けます。

(2) 동시다발 (同時多發)

- | | |
|--------------------|--|
| ①집에 돌아오자 금방 잤습니다 | *집에 돌아오면 금방 잤습니다.
家に戻れば寝ます。 |
| ②집에 돌아오자 12시가 지났다. | *집에 돌아오면 12시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家に戻れば12時過ぎました。 |
| ③일어나자 6시였습니다. | *일어나면 6시였습니다.
起きれば6時でした。 |

- ④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자 설국이었다. 밤 바닥이 하얗게 되었다.
 国境の長いトンネルを抜けると雪国であった。夜の底が白くなった。
 〈川端康成, 雪国, 1935, 昭和 10, 1. -11. 10〉
 열을 재자 섭씨 37 도였습니다. 熱を測れば摂氏 37 度でした。

11. 한국말 <-에>, <-에서>의 차이 (差異)

한국말에서 <에>는 방향(方向)을 나타내고 <에서>는 구체적(具體的)인 장소(場所)를 나타냅니다. 주로 한국말에서 방향을 나타내는 <에>는 일본말에서 조사 <へ>나 <に>

에 해당되고, 한국말에서 구체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우리말 조사는 〈-에서〉는 일본말 조사 〈で〉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예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어 표현

일본어 표현

(1) 방향 (方向) 〈-에〉

- ①서울에 가고 싶다.
- ②집에 가는 길에 만났다.

ソウルへ行きたいです。
家に戻る途中に会いました。

(2) 장소 (場所) 〈-에서〉

- ①우리는 대학 안에서 이야기를 했다.
- ②시장에서 샀다.
- ③친구 집에서 묵었다.
- ④홍대 앞에서 헤맸다.

私たちは大学内で話をした。
市場で買った。
友達の家で泊まりました。
ホンデの前で迷いました。

12. 한국말 장소 〈-에서〉와 수단 〈-으로〉, 그리고 일본말 조사 〈-で〉

일본말 조사 〈-で〉는 장소나 수단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한국말에서 장소를 나타낼 때는 〈-에서〉로 쓰이고, 수단을 나타낼 때는 〈- (으) 로〉가 됩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말 뒤에는 〈에서〉가 쓰이고, 수단으로 사용되는 말 뒤에는 〈-로〉가 쓰입니다. 구체적인 사용 예를 소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어 표현

일본어 표현

(1) 장소 (場所)

- ①집에서 보고서를 썼다.

家で報告書を書きました。

(2) 수단 (手段)

- ①연필로 썼습니다.

鉛筆で書きました。

13. 한국말 수단 〈- (으) 로〉와 자격 〈- (으) 로서〉, 그리고 일본말 조사 〈-で〉

한국말에서 수단을 나타내는 〈- (으) 로〉는 일본말 조사 〈-で〉이고, 자격을 나타내는 〈(으) 로서〉는 일본말 조사 〈-として〉입니다. 구체적인 사용 예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어 표현

일본어 표현

(1) 수단 (手段)

- ①이 그림은 색연필로 그렸습니다.
- ②이 떡은 찹쌀과 팥으로 만들었습니다.

この絵は色鉛筆で描きました。
このお餅はもち米、小豆で作りました。

(2) 자격 (資格)

- ①선생님은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 ②판사는 재판관으로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先生は教師として、生徒を教えました。
判事は裁判官として判決を下しました。

14. 한국어 (韓國語) 의 한자어 (漢字語) 표현 (表現)

한국말이나 일본말이나 한자어 (漢字語) 를 많이 사용 (使用) 합니다. 다만 한국어 (韓國語) 에서는 한자 (漢字) 의 경우 음독 (音讀) 을 원칙 (原則) 으로 하고, 고유어 (固有語) 와 한자말을 섞어서 쓰는 경우는 제한 (制限) 되어 있습니다. 일본 (日本) 한자어 (漢字語) 를 그대로 한자어 (漢字語) 로 읽으면 부자연 (不自然) 스럽거나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①경우 (境遇)	場合	場合 [chǎnghé, 창허]
②근처 (近處)	近く	
③내일 (來日)	明日 (あす)	明天 (míngtiān)
④단속 (團束)	取締	取締 [qǔdì, 추디]
⑤따분하다	退屈 (タイクツ)	乏味 (fǎwèi), 枯燥无味, 单调无聊
⑥명함 (名銜)	名刺 (meishi)	名片 [míngpiàn, 밍피엔 (명편)]
⑦무궁화 (無窮花)	槿, 木槿 (mukuge)	木槿花 [mùjǐnhuā, 무진화 (목근화)]
⑧미국 (美国)	米国	美国
⑨민폐 (民弊)	迷惑 (meiwaku)	弊病 [bìbìng, 비빙 (페병)]
⑩백화점 (百貨店)	デパート	
⑪봉투 (封套)	封筒 (フウトウ)	
⑫부자 (富者)	金持ち	
⑬불평 (不評)	文句 (モンク)	
⑭사탕 (砂糖)	飴	
⑮생일 (生日)	誕生日	
⑯선물 (贈物)	御土産, 贈物 (okurimono)	禮物 [lǐwù, 리우 (예물)]
⑰설탕 (雪糖)	砂糖	
⑱세수 (洗手)	洗面	
⑲성명 (姓名)	名前	
⑳수건 (手巾)	手でぬぐい; 手でふき; タオル	
㉑수표 (手票)	小切手 (kogitte)	支票 [zhīpiào, 즈파오 (지표)]
㉒약방 (藥房)	藥屋 (kusuriya)	藥鋪 [yàopù, 야오푸 (약포)]
㉓양말 (洋襪)	靴下 (kutsushita)	襪子 [wàzi, 와즈 (말자)]
㉔애인 (愛人)	戀人,	
㉕어색 (語塞) 하다	不自然 (ふしぜん) だ	
㉖어투 (語套)	口振り (クチブリ)	
㉗오늘	今日	
㉘용서 (容恕)	許す	
㉙우체국 (郵便局)	郵便局	
㉚월세	月極め	
㉛의사 (醫師)	医者	
㉜이앙기 (移秧機)	田植機 (taueki)	插秧機 [chāyāngjī, 차양지 (삽앙기)]
㉝인력거 (人力車)	人力車	
㉞일층 (一層)	一階	

㉓자동차 (自動車)	自動車	
㉔자전거 (自轉車)	自轉車	
㉕장갑 (掌甲)	手袋 (tebukuro)	手套 [shǒutào, 서우타오 (수투)]
㉖전날	前日	
㉗전달	前月	
㉘전세 (專賃)	貸切 (kashikiri)	包租 [bāozū, 빠오주 (포조)]
㉙절차 (節次)	手続き (tetsuzuki)	
㉚주유소 (注油所)	ガソリンスタンド	加油站 [jiāyóuzhàn, 자여우잔 (가유점)]
㉛지출 (支出)	出費, 支出	
㉜차례 (次例)	順番 (junban)	次第 [cìdì, 츠디 (차제)]
㉝책 (冊)	本 (ホン)	
㉞처지 (處地)	立場	
㉟천장 (天障)	天井	
㊱청소 (清掃)	清掃 (せいそう) ; 掃除 (そうじ)	
㊲축하 (祝賀)	お祝い	
㊳출시 (出市)	発売 (hatsubai)	上市 [shàngshì, 상스 (상시)]
㊴칠판 (漆板)	黒板 (こくばん)	
㊵침수 (浸水)	冠水	
㊶편의점 (便宜店)	コンビニ	利商店
㊷편지 (便紙)	手紙 (tegami)	信 [xìn, 신]
㊸화분 (花盆)	植木鉢 (うえきばち)	花盆

15. 한국어 <- 의> 와 일본어 <- の> 의 사용

두 명사 (名詞) 사이에 있는 일본어 (日本語) <- の> 는 한국어 (韓國語) <- 의> 의 뜻으로 사용 () 됩니다. <- 의> 가 명사 (名詞) 사이에 들어가 복합명사 (複合名詞) 가 되는 경우 대부분 한국어에서는 <- 의> 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본어에서 연체형 (連体形) 으로 <- の> 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말 <- 이다> 에 해당하기 때문에 <- 인> 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1) 한국말의 복합명사 (複合名詞) 와 <- 의> 의 사용 (使用) 한국말에서 명사 (名詞) 와 명사 (名詞) 가 합 (合) 해서 복합명사 (複合名詞) 가 되는 경우 두 명사 (名詞) 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말의 경우 대부분 (大部分) <- の> 를 끼워서 씁니다. 한국말에서 <- の> 의 뜻으로 <- 의> 를 넣으면 읽기도 불편 (不便) 하고, 어색 (語塞) 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 표현

- ①처음 대학생할
- ②한국인 친구

일본어 표현

- 初めの大学生活 (처음의 대학생할)
- 韓國人の友達 (한국인의 친구)

<관용어 (慣用語)> <- 의> 를 쓰는 경우

- ①마음의 여유
- ②한국의 멋

- 心の余裕
- 韓國の美

(2) 일본말 연체형으로 사용된 <-의> 일본말에서는 <-の>가 연체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국말 <-이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으로 바꾸어야 한국말 표현에 적합합니다.

①어제는 사세보 버거를 좋아한다는 호주사람인 줄리앙 씨가 TV에 나왔습니다.

昨日は佐世保バーガーが好きだというオーストラリア人のジュリアン氏がTVに出ました。

②생일인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생일의 친구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16. 한국어 (韓國語) 의 주격조사 (主格助詞)

한국어 (韓國語)에서는 한 문장 (文章)에서 주격조사 (主格助詞)를 두 번 사용 (使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말에서는 한 문장에서 주격조사 (主格助詞)를 한번만 사용합니다. 한 문장 (文章)안에 있는 주격조사 (主格助詞)가 모두 주어 (主語)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어 문장에서 <-의> 대신 주격조사 (主格助詞)를 두 번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의미 (意味)나 강조점 (強調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어 표현

일본어 표현

①그는 멋진 사람이었고, 친구가 많았다.

彼は素晴らしい人だったし、友達の多かった。

②일본인 직원이 있는 가게도 있고, 일본어 표기가 있는 가게도 많았다.

日本人の職員がいる店もあり、日本語表記のある店も多かった。

③친구가 많은 학생이 성적도 좋다.

ともだちの多い学生が成績もいい。

④라쿠초지로는 센리큐의 요구에 따라서 차사발을 만들었다. 라쿠초지로는 센리큐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차사발을 만들었다.

樂長次郎は千利久の求めに応じて茶碗を焼いた。

〈日本經濟新聞 2016. 6. 24.〉

⑤나는 아르바이트 동료가 차로 태워다 주었기 때문에 기뻐다.

私はバイト仲間の人の車に乗せてくれたから嬉しかった。

마무리

지금까지 한국어 (韓國語) 작문 (作文)을 가르치면서 경험 (經驗)한 일본인 (日本人) 학습자 (學習者)가 한국어 표현 가운데 자주 틀리는 점 (点)을 몇 가지로 정리 (整理)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절대적 (絶對的)인 것은 아닙니다. 일본 (日本) 학습 (學習)자가 쓴 문장 (文章)은 대부분 (大部分) 뜻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어 (韓國語) 문법 (文法)이나 관용 (慣用) 표현 (表現)에 맞는 올바른 문장 (文章)을 쓰기 위해서 주의 (注意)할 필요 (必要)가 있습니다. 작문 (作文) 수업 (授業)은 1년 동안 한국어 (韓國語) 기초 (基礎) 수업 (授業) 135 시간 (時間)을 공부한 학생 (學生)들 2학년 (学年)과 3학년 (学年)을 대상 (対象)으로 하였습니다. 학생 (學生)들은 학습 (學習)능력 (能力)이나 학습 (學習)시간 (時間)에서 개인차 (個人差)가 있고, 유학 (留學) 경험 (經驗) 여부 (與否)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 (差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서 보이는 사례를 피상적 (皮相的)으로 검토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문법적 (文法的)인 비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注

- 1) 우리나라에서 학교문법에 대한 논의는 때에 따라서 변화를 겪었다. 이 글에서는 학교문법에 대한 논의가 아니고 학교문법 품사 분류 가운데 관형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것을 일본어와 비교하여 말하는데 그친다. 이응백, 김원경 외, 국어국문학 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소, 1998.
- 2) 간사람, 가는 사람, 갈 사람이나, 먹은 사람, 먹는 사람, 먹을 사람에서 처럼 과거, 현재, 미래에 따라서 어미가 다시 바뀌기도 합니다.
- 3) *표는 비문(非文)를 나타냅니다.

참고문헌

- 권재일, 한국어문법론, 태학사, 2014.
- 권재일, 김공칠, 원시한일공통어의 연구, 한국문화사, 1995.
- 이응백, 김원경 외, 국어국문학 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소, 1998.
- 최창렬, 국어교수법연구, 일지사, 1987, 3쇄.
-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사, 1983, 수정판(10),
- 홍사만, 한 일어 대조어학 논고, 탑출판사, 1995.
- 池田温, 日本古代史を学ぶための漢文入門, 吉川弘文館, 2006
- 菅野裕臣, 朝鮮の漢字音の話, 神田外語大学韓国語学科共同研究室, 2010.3
- 참고 누리집 > 한글학회, <http://www.hangeul.or.kr/>, 2016.6. 국립국어연구원, <http://www.korean.go.kr/>, 2016.6.